

# 패널토론 내용

---

1. 먼저 이런 소중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패널토론자로 불러주신 대덕클럽 최영명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한국 기초·원천 연구현황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오세정 NRF 이사장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발표 내용 조목조목마다 그동안 연구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겪고 느끼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명쾌하고 정확한 답을 내어 놓으신데 대하여 연구자의 한사람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3. 저는 현재 출연(연) 중의 하나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연(연)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날 출연(연)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미션을 수행할 것을 안팎에서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산업계와 확실히 차별화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라, 선진국도 감히 가지지 못한 세계최고수준의 원천 창의 기술을 개발해라, 소소하게 작은 결과물 보다는 세계적수준의 블록버스터급 상품을 개발해서 실제로 이익이 날 수 있는 실용상업적 결과물을 창출해라. 출연(연)은 논문 생산은 하지 말고 오로지 기술, 특허 생산 위주로 해야 한다. ‘출연(연)이 인프라만 열심히 해야 한다’ 또는 ‘출연(연)의 임무는 중소기업의 가려운 부분을 즉시즉시 긁어줄 수 있는 기업지원 역할만 충실히 해야 한다’ 등 엄청나고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출연(연)이 만능 스포츠맨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는 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어떠한 간에 결국 연구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꾸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저는 오늘 이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나라 국가 R&D의 전체적 흐름과 경향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R&D의 전체적 방향과 철학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R&D의 핵심 주무부처인 교과부, 지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식품부 등에서 사용하는 R&D 자금의 배분 비율을 보면 거의 70%에 달하며 이 막대한 국가R&D비용이 단기결과 창출 위주의 연구비 형태로 대부분 투입되고 있고 30%정도가 그나마 중장기 기초 원천 연구를 할 수 있는 구도로 되어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말로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 R&D방식으로는 가망성이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방식은 주도 추격형 R&D, 단기성과 위주의 R&D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와 정책당국에서 하루 빨리 이것을 시정하여서 적어도 70% 이상의 국가 R&D자금이 기초, 원천, 창의 기술개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부처 특히 지경부같은 부처에서는 도에 지나칠 정도로 단기성 결과에 집착해서 심지어는 R&D 성공률이 데이터 상으로 70%에 육박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R&D 성공률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 미만이며 평균 5% 내외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공비율인데 7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왜곡된 Data로 인하여 전체적인 국가 R&D방향이 점점 더 단기성과 위주로 흘러가게 되고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의 우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과학기술부가 있었을 때는 그나마 원천, 기초, 창의 연구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으나 지금 과기부가 교육부와 합쳐져서 교과부가 된 상황에서 과기부의 역할이나 철학이 대단히 위축되고 상실된 현실을 생각할 때 더욱 더 염려되는 바가 큼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NRF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단기성과 위주의 R&D 방식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더 깊숙이 인식하고 계시는 오세정 이사장님께 거는 기대가 남달리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오세정 이사장님의 고견을 듣기를 요망합니다.